

지역 매아리

정읍시,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시민의 시정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580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공개(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 ▲원문정보공개(부시장 이상 결재한 문서를 공개한 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청구인의 만족도 수준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사는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를 평가단장으로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평가단이 담당했다.

시는 사전정보공개와 원문정보공개 2개 분야에서 만점 평가를 받는 등 평균 87.6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읍시 행정의 그만큼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 해주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추석 명절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마련

정읍시 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 보건기관 42개소·의료기관 2개소·약국 2개소가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정읍시보건소는 연휴기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시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시민에게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휴일진료가 약국을 안내하고, 실제 운영여부를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진료약국 안내는 ▲정읍시 보건소(☎339-6137) ▲보건복지부 콜센터(☎120) ▲응급의료정보센터 ▲119구급상황 관리센터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한다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선정... 44억원 확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서 기초생활개선사업 분야에 4억4천만(44억)과 역량강화사업(4억)에 최종 선정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수준을 높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민 농촌유입을 촉진시켜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면과 마을의 신청을 받아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승인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위원회, 정읍시의 공모전복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에서 최종 결정된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사업유형으로는 면 소재지 중심지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생활개선사업(40~60억) 사업과 주민·지자체 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시·군 역량강화사업(4억) 등이 있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과 컨설팅, 행정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예비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 개발 전문가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 도시로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1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주민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향후 지역을 쇠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 "추석명절 차질 없도록 태풍피해 신속복구"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 보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9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동안 비상근무에 일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행정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철

저히 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공공 시설물과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종합대책 분야별 추진부서는 귀성객과 군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귀성객과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재난관리,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 종합상황실 근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부안군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

구시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시책 발굴은 머무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 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행정안전부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 부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개최 이전에 노후간판과 불량간판을 부안의 고유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잼버리와 연계한 논리를 개발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영식 기자



최근 고창경찰서에서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있다.

고창서-고령운전자 협업, 교통안전 홍보영상 제작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과 함께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촬영·제작하고 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영상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과 야간 밝은 옷 입기와 안전모 착용을 주제로 제작했다. 전북 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올해 7월 20.01%를 기록,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년층 대상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들이 참여한 교통안전 영상제작으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작한 교통안전 홍보영상은 페이스북·밴드 등 SNS 홍보 및 축제·관광서 기사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는 시·군·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감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풍피해 입은 농작물 2차 피해 예방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영)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지나간 후 농작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물에 잠긴 논은 서둘러 밭갈이하거나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남아 있는 흙 인공과 오물들은 제거한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 물로 걸러대기를 통해 뿌리의 활력을 촉진 시켜야 한다.

밭에 도복 피해를 입은 콩이나 고추 등의 노지 작물들은 지주대를 이용해 세워주고 겹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태풍피해로 인해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 액을 잎에 뿌려 회복을 촉진 시켜주고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해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아 다른 열매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태풍으로 약해진 작물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하니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방제약제를 살포해 병해충을 예방해야 한다.

비랍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의 부러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위에

도포제를 발라 병해를 예방하고 과수원의 경사로 인한 흩어 유실된 곳은 서둘러 정비한다.

쓰러진 나무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우고 보조 지주를 설치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이어나갈 수 있다. 낙과된 과실은 과원 내 정결을 위해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과수원 농업시설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문인력을 통해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복구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생육이 부진한 작물은 병해충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병해충에 대해 철저히 방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복분자와 곁들여 먹는 환상의 맛'

'대표 음식거리 30곳' 전북도내 유일 고창 풍천장어거리 선정

올 추석연휴 가족과 찾으면 좋은 대표 음식거리로 고창 풍천장어거리가 선정되면서 미식도시 고창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지역별 대표 음식거리 30곳에 고창 풍천장어거리가 포함됐다. 전북도내 유일하다.

농림부는 전국 270곳의 음식거리 가운데 지자체의 추천 등을 받아 추석연휴 각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찾아가 즐길 수 있는 30곳을 선정했다.

풍천장어는 말물 때 새해 바닷물이 들어와 민물과 만나는 선운

산 어귀 인천강에서 잡히는 장어를 말한다. 풍천은 지렁이 아니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 하구'를 의미한다. 풍천장어의 본고장답게 고창 선운산 일대에는 40여 개의 풍천장어집이 줄을 지어 풍천장어거리를 이루고 있다.

가게마다 양념구이, 소금구이, 복분자구이, 장어탕 등 남녀노소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농식품부 남태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친체면 지역경제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천장어는 말물 때 새해 바닷물이 들어와 민물과 만나는 선운



한편, 고창군은 이번 추석 때 장어거리를 찾는 외지 방문객들이 더 머물고,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주변 관광지(미당시문학관, 하천어촌체험마을, 상하농원, 학원농장 메밀밭 등)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s listed include: 1. 750ml 2ea, 잔 2ea/16%,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3. 750ml 1ea/12%, 4. 500ml 2ea, 잔 2ea/12%, 5. 375ml 5ea/13%, 6.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7. 375ml 2ea/13%. Contact: TEL: 063-584-9960 www.gangsanwine.com